

'월드컵 첫 상대' 우루과이, 화력쇼 무섭네

수아레스 빠졌는데도 파나마에 5-0 완승 카바니 멀티골 활약... 수비불안 한국 큰 부담

한국 축구의 2022 카타르월드컵 첫 상대인 우루과이가 파나마를 대파하며 상승세를 이었다.

우루과이는 12일(한국시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파나마와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에딘손 카바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멀티골 등을 앞세워 5-0 대승을 거뒀다.

지난해 11월 월드컵 남미 지역예선에서 볼리비아에 0-3으로 패한 이후 올해 A매치 7경기에서 6승1무로 패배가 없다. 이달 초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3-0으로 이겼고, 미국과는 0-0으로 비겼다. 최근 7경기에서 16골을 퍼부으며 강력한 공격을 뽐냈다. 실점은 1골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베테랑 공격수 카바니는 전반 39분과 후반 3분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며 대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간판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메디컬 이슈로 6월 소집에 합류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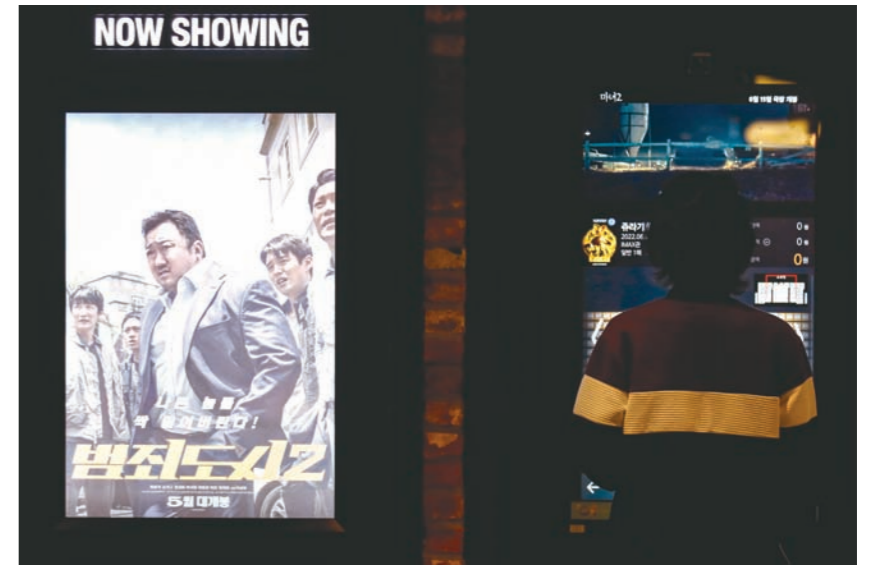
카바니와 수아레스가 호흡을 맞출 경우, 전력은 더 탄탄해진다. 최근 수비 불안이라는 큰 과제를 얻은 벤투호로서 고민이 커지는 대목이다.

한국은 카타르월드컵 H조에서 우루과이, 포르투갈과 나와 경쟁한다.

한국은 11월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에두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우루과이 에딘손 카바니. 스키아데일리/뉴시스



영화 '범죄도시2'가 누적 관객수 930만명을 넘어선 7일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한 시민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마동석·손석구 '범죄도시2' 엔데믹 시대 첫 1000만 영화

역대 28번째... 한국영화론 20번째 기록

마동석·손석구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2'가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과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봉한 '범죄도시2'는 개봉 25일째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넘겼다.

역대 스물여덟 번째 1000만 영화이자, 한국 영화로는 스무 번째 1000만 영화다. 특히 엔데믹 시대 첫 1000만 영화다. 2019년 5월 '기생충' 이후 3년 만의 1000만 영화이기도 하다.

앞서 25일째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들인 '베테랑'(2015), '암살'(2015)과 비슷한 속도다. 두 영화의 누적 관객은 각각 1340만명, 1270만명이다.

업계는 '범죄도시2'의 누적 관객이 1200~1300만명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범죄도시2'는 2017년 개봉해 688만명인 '범죄도시'의 후속작이다.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베트남에 가서 대한민국의 영사관에 자수한 범죄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현지에 갔다가 그곳에서 무자비한 악행을 벌이는 '강해상'(손석구)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빠른 전개, 캐릭터의 선명함 등에 대해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자신의 캐릭터를 투영해 시원한 액션을 선보이는 '마블리' 마동석,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구씨' 역을 통해 '대세 배우'가 된 손석구의 시너지가 컸다는 분석이다.

슈워젤, LIV 골프 개막전 우승... 상금 역대 최대 60억원

3라운드 최종합계 7언더·203타로 첫 대회서 'V' 사우디 국부펀드 후원... 막대한 자금 쏟아부어 24오버파 최하위 오글트리도 1억5000만원 뺏겨

찰 슈워젤(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후원을 등에 업고 출범한 리브(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첫 대회에서 우승했다.

슈워젤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세인트 올번의 센추리온 클럽(파70)에서 끝난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개막전 최종 3라운드에서 2오버파 72타를 기록, 최종 합계 7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

개인전 우승 상금은 400만달러. 단체전에서도 우승한 슈워젤은 이번 대회에서만 475만달러(약 60억8000만원)의 상금을 벌어들였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가장 상금 규모가 큰 플레이어 챔피언십 우승 상금 360만달러보다 115만달러

가 많은 금액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하위에 머문 앤디 오글트리(미국)는 24오버파에 그치고도 상금 12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챙겼다.

이번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골프 투어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PGA 투어, DP 월드투어 등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영입했다.

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과 지난해 PGA 챔피언십 우승자 필 미켈슨(이상 미국) 등도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대회에서는 브라이언 디셔보,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등 PGA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 경력을 가진 선수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개막전 우승자 슈워젤은 PGA 투어에서



리브(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첫 대회에서 우승한 찰 슈워젤. 뉴시스

통산 2승, DP 월드투어에서 통산 11승을 거둔 선수다.

그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벌어들인 상금 475만달러는 최근 4년 동안 PGA 투어에서 받은 상금보다 많다.

이날 2001년 9·11 테러 희생자 유족 단체가 미켈슨-존슨-케빈 나(미국) 등의 선수

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시리즈 참여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슈워젤은 "2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는 상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찾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앤디, 9세 연하 이은주 아나운서와 결혼

그들 '신화'의 막내 앤디(이은주, 41, 오른쪽)와 이은주(32, 왼쪽) 제주 MBC 아나운서가 12일 서울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해 왔다. 앤디는 지난 1월 결혼 소식을 알리며 이은주에게 "저에게 평생 함께 하고 싶은 한 사람이 생겼다. 제가 힘든 순간에 저를 웃게 해 주고 저를 많이 아

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앤디와 이은주는 오는 20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을 통해 신혼생활을 처음 공개한다.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나의 건강 타임포인트 리턴업

Returnup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1회 분량 : 1캡슐(500mg)

총 60회 분량

1회분량 당 함량 : 열량 0 kcal, 탄수화물 0g(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로로산(lauric acid) 89.6mg, 비타민B1 1.2mg(100%), 비타민B2 1.4mg(100%), 비타민B6 1.5mg(100%), 비타민B12 2.4µg(100%), 아연 4.95mg(58%), 셀레늄 30µg(55%)

※ (인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1+)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